

##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근무환경 개선 대책 시행키로

### 간협, 건정심 참여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 펼쳐

간호등급 '입원환자 수' 기준 경기도·광역시에 적용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등급 미신고 시 '등급외' 신설해 감산 적용

앞으로 간호인력 미신고 시 부여되는 패널티가 강화되며,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5월 22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패널티) 10%를 적용해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올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경기도·광역시단체 소재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간호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를 개선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단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설립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올해 7월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원서비스 질 개선 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개선방안이 의결되기까지 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수가 개선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 '지역사회 통합돌봄' 6월부터 시작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

기초자치단체 8곳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델에 따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6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번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선도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5곳이다.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2곳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1곳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서비스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역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재정지원 예산도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배치도 지역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다지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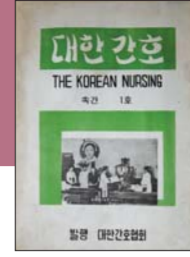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치·운영하게 된다. 올해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품질 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남도 진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남도 순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선도사업을 연내 추진해 총 16개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며 "이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④-1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삼습니다.  
\*아래의 글은 당시 UN간호원 대표 쉐스 소령이 쓰고, 대한간호협회 이영복 제1부회장이 번역한 '격려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며,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간호사업에 몸바친 선구자들의

고충과 눈물의 결실로 간호는 진보한다

한국 간호사업의 수준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회가 아직 나이 어린 회원 만큼 '자라나는 진통'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조직체가 발달하는 데는 대개 다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은 다만 단결된 분투와 꾸준한 노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간호원을 위한 좀 더 나은 인사행정과 경제 안정을 위하여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고심한 많은 영웅적인 여성들이 간호사업을 가정적 수준에서 오늘 우리가 은행을 받고 있는 전문적 직업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업은 한 작은 배움 집에서 시작해서 높은 학구의 전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인기받은 학교의 졸업장이 최후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다만 계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는 지식의 경역에 들어가는 통행증에 불과합니다. 오늘 미국의 젊은 간호원들은 간호학교 졸업 후 실제적 경험을 쌓는 동시에 학위 받을 연구를 계속합니다.

미국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와 전국간호연맹(National League of Nursing) 두 단체는 전국적인 직업간호원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실지 간호와 인사행정을 위하여 일하고, 후자는 사업부문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간호협회의 회원자격은 전국 내 등록된 자격간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간호연맹은 등록간호원 이외에 의료부문 전역에 걸쳐 의료행정인 이 사업의 고문과 자문위원들도 널리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간호협회 산하에는 간호사업 분류와 직분에 따라 각분과 위원회가 있으니 즉 간호교육 보건간호 산업간호 간호행정 등 분과회입니다. 이 같은 조직 체계가 각 주와 군 단위로 또는 아주 작은 지방 단위에까지 미치어 있습니다. 간호원들은 쉽사리 이런 단체와 손을 잡을 수 있고 주행정부나 중앙행정부에도 끊임없는 연락을 취하면서 간호사업, 시설확충, 환자간호법 향상 등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래어달메디컬 기술지원 프로그램

### 구입하신 장비 상태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드립니다



- 시뮬레이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미작동과 장비 운영 기술은 시뮬레이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수한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고객의 장비를 최상의 상태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검증된 기술지원서비스로 고객의 장비에 관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관리 체계로 지속적인 환자 치료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시뮬레이터 보증 기간 연장**  
구매 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소모품 교체 패키지**  
대부분의 주요 소모품(PM) 혹은 가장 빈번히 소모되는 제품 교체(PM Lite) 중 택 1 가능
- 종합 장비 평가 시스템**  
무상 정기 점검 서비스 시스템 운영(년 2회)
- 최우선 전문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최우선 전문 수리(24시간 이내 방문)
- 무상 대여 서비스**  
학기 중 장비 입고 수리 시 무상 대여 서비스
- 예산 편성 계획표**  
지속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계획표 제출